

구약논단

제15권 1호(통권 31집) 2009년 3월 31일

유 윤중(평택대) 석 말숙(나사렛대 사회복지) 구약성서의 입장에서 본 이주 노동자
복지에 대한 교회의 개입방안들 174

본 연구는 이주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범 교회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태,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주 노동자, 한국교회의 이주 노동자 복지의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방법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법적 지위, 경제, 의료, 사회, 삶의 지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 비교하는 것이다.

구약 성서의 입장에서 본 이주 노동자 복지에 대한 교회의 개입 방안들

유 윤종 | 평택대, 석 말숙 | 나사렛대

1. 시작하는 말

1) 문제제기

미국의 언론인 토머스 프리더먼이 말한 대로, 우리는 '평평한 세계'에 살고 있다.¹⁾ 1990년 이후 발달된 정보 기술 산업 덕택에, 우리는 자본, 기술, 정보, 인력 등이 자유롭게 오가는 지구촌에 살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 세계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많은 한민족이 미국이나 중국과 일본과 같은 세계 속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살고 있다. 세계화 가운데 노동력의 국제 이동 현상은 평평해진 세계 질서 속에서 지역 경제와 세계 경제가 교류하면서 통합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것으로, 저개발국의 임금이 낮은 노동력이 임금이 비싼 국가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987년 산업 연수생 제도의 도입으로 시작된 우리 나라의 이주 노동자는 2007년

* 이 논문은 2008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토마스 L. 프리더먼, 「세계는 평평하다」 (김 상철 옮김), (서울: 창해, 2006).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1,066,291명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이주 노동자²⁾들로, 약 47.1%인 502,082명이다.³⁾ 국경의 경계가 점차로 허물어져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점차로 늘어가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의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에서 시작한 세계 경제의 위기는 2009년의 경제적 체감 온도를 더욱 더 차게 느끼게 할 전망이다. 성장이 둔화되고, 도산 기업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증가될 전망이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에서의 위기로 말미암아,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심화될 조짐이 보인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기피하던 3D 업종의 일자리마저 한국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보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 수 있으며, 나아가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혐오 내지는 탄압에 빠져들 수도 있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반대를 위한 활동도 인터넷에서 전개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대 현상은 기업인이나 우리 사회의 기득권 층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임금의 경쟁에서 불리해 일자리를 잃게 된 내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제기된다. 미국도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어려운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아졌다. 그 결과 자국민에게 우선적인, 혹은 자국민 위주의 정책이 나올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한국에 거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입지가 점차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질은 매우 낮아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많은 단체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숫자의 증가에

2) 이 단어는 '외국인 근로자' 혹은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도 불리지만,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보다는 우리나라에 정착해 산다는 의미에서 요즘은 ILO의 용어를 따라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로 더 빈번히 불린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주 노동자'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이다.

3) 박 찬식, "21C 선교 환경변화와 이주자 선교의 관점과 전략," 박 찬식/정 노혜(편집), 「21C 신 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서울: 기독교 산업 사회 연구소, 2008), 26-27쪽. 그 외에 결혼 이민자(10.4%), 유학생(5.7%)의 순서이다.

따른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 복지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가운데 가장 미약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한계에 따라, 시민 단체들과 종교 단체들이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집단으로 자리 매김 되어 가고 있다.⁴⁾ 그러므로 교회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단체 및 기독교인의 동참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교회의 선교회나 독립된 선교회의 형태로 이주 노동자 복지에 참여하는 기독교 단체는 약 80여 개에 이른다.⁵⁾ 그러나 교회의 이주 노동자 복지에 대한 관심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며, 규모나 조직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하므로, 범-교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사.

기독교인은 어떤 일을 할 때 성서적 근거와 이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서가 모든 사고와 행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주 노동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구약 성서 학자들이 이주 노동자 복지를 위한 성서적 근거를 찾으려 노력해 왔다.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구약 성서와 연결시켜 다룬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어 왔다. 1990년대에는 주로 교회의 활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성서적, 신학적 명제를 선포하는 차원에서 비-

4)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은 종교 단체에서 시작되었다. 종교 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이주 노동자를 지원한 그룹은 천주교였다. 1992년 8월에 '천주교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설립하고 임금 체불, 산업 재해, 폭행 피해 등의 노동 상담과 출입국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 활동을 하는 한편, 이주 노동자끼리의 상호 부조 조직을 지원하기도 했다. 1992년 말부터 개신 교회도 지원 활동을 시작했으며, 11월 27일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를 결성해 본격적인 지원에 참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박경태, "이주 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 노동자 운동의 성격," 『경제와 사회』 67집(2005), 91-92쪽.

5) <http://cafe.never.com/kiimorg/438>. 물론 이 카페에 수록된 단체의 리스트 또한 전부가 아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나 기관도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빠진 기관이나 교회를 포함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를 포함하면 숫자는 12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숫자는 카톨릭 교회의 10여 곳, 불교의 5개에 비해 월등히 많다. 자세한 내용은 김 기원,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통합연구』 제41집(2004), 68쪽을 참조하라.

성서학자들이 부분적으로 다루었지만,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여 양적,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동구는 “나그네에 대한 (구약)성경적 연구”를 통해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었다.⁶⁾ 그러나 초점을 ‘이주 노동자’ 보다는 ‘나그네’라는 폭넓은 개념으로 접근한다. 나그네를 정치적, 경제적 및 기타의 이유에서 발생한 나그네, 떠돌이, 망명자로 규정하며, 주로 이스라엘의 국내적 시각에서 북 왕국의 멸망 및 이농 현상과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난민 내지는 나그네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주 노동자의 문제와는 다소 거리를 지낸다.

이 종록은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구약 성서의 이해”라는 논문을 통해 이주 노동자 선교의 구약 성서적 근거를 처음으로 소개했다.⁷⁾ 그는 사 56장 3-8절과 사 66장 18-24절에서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를 소개하며,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게르’, 즉 ‘외국인 노동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⁸⁾ 이어서 구약 성서 내에서 시행되었던 이방인 보호 대책으로, 추수할 때 열매나 이삭을 남겨두라는 내용과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이방인을 참여시켰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외국인에 대한 동일한 법 적용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성서적 근거를 제시한다.⁹⁾ 그러나 이 글은 구약 성서 내의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미흡하며, 제 3 이사야에 나타난 ‘게르’ 사상을 논문의 중심에 두고 고찰함으로써, 구약 성서에서 나타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언급 내지는 종교적 한계도 성서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놓치고 있다.

왕 대일의 글 “나그네(나그 게르)-구약신학적 이해”¹⁰⁾는 ‘게르’에 대한 어원에서 시작하여, 김 성재의 학위논문¹¹⁾을 중심으로 사회사적 문헌비평

6) 한 동구,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사회과학 연구』 3집(1999), 289-303쪽.

7) 이 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구약성서적 이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외국인 근로자 선교 위원회(역음),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124-150쪽.

8) 이 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130-139쪽.

9) 이 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 139-148쪽.

10) 왕 대일, “나그네(나그 게르)-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집(2001 여름), 101-121쪽.

11) Sung-Jae Kim, *The GER and the Identity of Ancient Israel: Socio-literary Analysis and Deconstructive Interpretation*, Ph. D. Dissertation, Graduate Theological Union, 1996.

을 시도하며, 포로기 전과 포로기 후로 구분하여 다루며, 타 인종 사람들, 즉 이주 노동자로서의 '게르'의 개념은 요시아 시대에 와서 비로소 사회 계층적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포로 후기 시대에 이르러 비-이스라엘인, 즉 외국인을 지칭하던 말인 '게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를 이해하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즉 '게르'가 이스라엘 스스로를 일컫는 내면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¹²⁾ 따라서 '게르'의 의미를 사회사적 시각에서 역사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태훈은 “구약의 외국인 복지”¹³⁾라는 글을 통하여,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었으며, 한국 교회가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 개입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즉 그는 구약 성서에 나타난 외국인을 크게 ‘노크리’와 ‘게르’로 구분하고, ‘노크리’는 이스라엘 사회나 문화에 동화하려는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으로, ‘게르’를 신분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식 시민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관습에 동화되어 정착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으로 구분한 다음, 구약 성서가 ‘노크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 ‘게르’에 대해서는 배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게르’에 대한 배려와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가치와 정책을 오늘날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 이용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 성서에 나타난 ‘게르’의 인식에 대한 역사와 사회학적 의미의 파악이 결여되어 있으며, 한국 교회가 시행해야 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 책이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3) 연구 목적 및 방법론

이 글은 현재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실상과 교회의 이주 노동자 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주 노동자와 관련하여 연구된 구약 성서 분야에서의 성과에 기초하여, 교회가 이주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약 성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12) 왕 대일, “나그네-구약신학적 이해,” 117쪽.

13) 이 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제27집(2008), 70-88쪽.

의 이주 노동자 복지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둔다.

이 연구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현 실태,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주 노동자, 한국 교회의 이주 노동자 복지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 방법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법적 지위, 경제, 의료, 사회, 삶의 지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 비교하는 것이다. 이 방법론은 김 기원, 이 만식의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¹⁴⁾

2. 이주 노동자의 현실과 한국 교회 선교 정책에 나타난 문제점들

1) 이주 노동자들의 사회적 현실

우리 나라는 혈통주의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그다지 너그럽지 못하며,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더불어 살려는 의식도 개방적이 못하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현 상황, 국경선이 점차 허물어져 가는 평평한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 강한 탓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가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온 역사가 짧은 까닭이기도 하다. 따라서 타민족, 타문화에 대해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입된 이주 노동자들과의 삶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 법적인 지위, 경제적 지원 등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1) 인권 문제

2008년 11월 30일 ‘이주 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서 권 영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외쳤다: “이주 노

14) 김 기원은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1. 가치 판단자, 2. 이슈 제공자, 3. 서비스 제공자, 4. 사례 관리자, 5. 프로그램 개발자, 6. 사회 교육자, 7. 자원 조달자, 8. 자원봉사 관리자, 9. 복지정책 형성 개입자”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구분하기 쉽지 않고, 중첩되기도 하며, 이주 노동자 복지와의 구체적 연결점이 약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김 기원,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66-67쪽을 보라. 한편 이 만식은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관련 제도의 문제점으로 산업기술연구생 제도와 이들의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다루며, 제도적 문제로 파생되는 생활상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임금, 임금 체불), 사회적 문제(폭행, 결혼), 의료 문제(산업재해, 의료 문제)를 들고 있다. 이 구분법은 구체성을 지니고 있으나,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적 문제, 인권 등과 같은 가치의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서 체계적이 통합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참조 이 만식,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26집(2000), 404-416쪽.

동자는 강제 노역자가 아닙니다. 일반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경제를 위해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날의 집회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을 얻기 위한 대회였다.¹⁵⁾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체류중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주 노동자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값싼 노동력, 혹은 일하는 기계로 파악하는 비-인권적 행위를 용인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주 노동자들은 자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국을 떠나 우리 나라에서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주 노동자를 차별, 통제, 착취, 배제의 대상으로 본다. 박 천응은 이들에 대한 인권 차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문화적으로는 차별의 대상이고, 정치적으로는 통제의 대상이고, 경제적으로는 착취의 대상이고, 사회적으로는 배제의 대상이다.”¹⁶⁾

(2) 법적 지위의 문제

설 동훈은 법적인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한다. 첫째는 합법적인 취업자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며, 출입국 관리법과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취업이 허용되는 교수(E-1), 회화 지도(E-2), 기술 지도(E-3), 예술 흥행(E-6), 특정 직업(E-7)의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거류하는 등록된 외국인으로 전문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다.¹⁷⁾ 둘째는 1991년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 시작된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이들이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근로기준법 상 합법적인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¹⁸⁾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이주자는 2007년 12월 통계로 842,809명으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¹⁹⁾ 셋째는 출입국 관리법 상 91일 이상 체류가 인정되지 않는 소위 ‘불법 취업자’라 일컬어지는 미등록 노동자이다. 이

15) 매일노동뉴스, 12월 1일자. 이 행사는 2008년 11월 12일 경기도 마석가구공단에서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토끼몰이 식으로 단속한 것에 대한 항의 집회였다.

16) 박 천응,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실천」 (안산: 국경없는 마을, 2006), 57쪽.

17) 설 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10쪽.

18) 설 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10쪽.

19) 박 찬식, “21C 선교환경변화와 이주자 선교의 관점과 전략,” 25쪽.

들이 이주 노동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한을 넘기면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과 산업 연수생 가운데 지정 사업체를 이탈한 사람들이다.²⁰⁾ 2004년 이후 고용 허가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국했지만, 불법 체류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2007년 말 통계에 의하면 223,464명으로, 전체 외국인 이주자의 약 21%이다.²¹⁾ 이들 가운데 합법적인 지위를 지니면서 전문성을 지닌 첫 번째 그룹의 경우 작업 환경이나 소득에 있어서도 국내의 일반 노동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어 큰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 기관이나 교회의 개입이 절실히 요청되지 않는다. 문제는 둘째 그룹 가운데 산업 연수생으로 중소기업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이탈한 자들과 세 번째 그룹인 불법 체류자들이다. 이들은 원래는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불법적인 신분이 드러날 경우 추방 등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 때문에,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3) 경제 문제

이주 노동자들이 당하는 경제적 문제는 저임금과 임금 체불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기업체의 입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은 현 시장의 임금이 낮고 일도 힘들기 때문에, 산업 현장을 이탈하고, 서비스 업종으로 옮기게 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중국 교포의 경우 우리말을 어느 정도 구사하며 외모에도 차이가 없어서 제조업체의 현장을 보다 쉽게 이탈한다.²²⁾ 특히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이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1/3 가량 줄어들었다.

임금 체불은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사업체의 부도나 경영 악화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요인도 있지만, 임금 체불의 상당 부분은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남용되는 예가 많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20) 설 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11쪽.

21) 박 찬식, “21C 선교환경변화와 이주자 선교의 관점과 전략,” 25쪽.

22) 이 만식,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26집 (2000), 411쪽.

강제 출국의 위험 때문에 법원이나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사업주는 악용한다.

천안외국인근로자센터에 따르면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는 909건. 상담 내용별로는 임금 체불이 195건(21.45%)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변동과 의료 상담이 각각 141건(15.51%), 132건(14.5%)으로 뒤를 이었다. 2008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접수된 상담이 지난해 11개월간의 상담건 수 보다 많은 1,056건을 기록하고 있다. 역시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은 임금 체불로, 252건(23.86%)이 접수됐다. 취업 상담도 117건(11.07%)을 차지했다. 천안외국인근로자센터 최 성운 과장은 “경기불황 여파로 기업의 운영 여건이 악화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센터에서 지급을 재촉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도 미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한국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악용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사업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²³⁾

(4) 사회 문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빈번한 문제는 폭행이다. 폭행은 폭언, 폭력, 성폭행을 포함한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의 30% 정도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한 중소기업체 사장은 “뺨을 때리는 정도로 문제를 삼는다면 어떻게 일을 시키겠느냐”고 말할 정도로 작업 중 폭행이 흔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5) 삶의 질 문제

삶의 질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 근로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의료와 관련된 것이다. 열악한 조건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 노동자는 산업 재해에 희생되기 쉽다. 많은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의 경우 산업 재해를 당하더라도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

23) 천안신문 494호(2008. 9.8).

24) 2002년 9월 16일 연합뉴스, 경남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의 설문 통계에 의한 것임.

25) 이 만식,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412쪽.

또한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전혀 다른 언어, 음식, 문화 등으로 인해 그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은 많은 제약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동남아와 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경우,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니,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먹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대개 회사나 공장 내에서 먹고 자는 편이며,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공간에서 살기도 한다. 높은 물가로 인하여 일터 밖을 벗어나기 힘들며, 거리를 나가더라도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제대로 된 여가 생활을 누리기가 어렵다.²⁶⁾

2) 한국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이주 노동자 복지 선교의 과제.

한국 교회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주 노동자의 복지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띤다. 첫째, 일반 교회 내에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를 두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구 남산교회, 안산 제일교회, 부산 신평로 교회, 서울 송의교회, 사랑의 교회 등에서는 교회 내에 이들을 위한 선교회를 두고 활동한다. 이 경우 대개는 재정 자립이 든든한 대형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넉넉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주된 방향이 본 교회 목회 중심적이어서, 이주민들을 목회 차원에서 돌보고 도와줄 수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데 어려움을 지닐 수 있다. 둘째, 이주 노동자만을 위한 교회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경산 외국인 노동자 교회, 서울 조선족 교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 이주 노동자만으로 구성되어, 이들을 위한 전담 목회가 가능하며, 이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사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닐 수 있다. 셋째, 전문적인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는 NGO 단체들이다. 공촌 외국인 사랑방, 광주 외국인 노동자 선교 센터, 김포 외국인 근로자의 집 등이 있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색채를 넘어 활동함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이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기성 교회나 개인으로부터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정

26) 홍 성현, "외국인 노동자들과 난민에 대한 봉사목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외국인 근로자 선교 위원회(역음),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0), 257-258쪽.

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한국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 노동자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의 엄청난 헌신과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이미지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의식의 문제이다. 임 희모는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목회의 틀을 좁게 가지고 이주 노동자 문제를 개종의 문제나, 선교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나 라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⁷⁾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타종교를 가진 외국 근로자를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구령 사업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인권과 복지 문제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개신교 이기주의 내지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식될 뿐이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으로, 주로 교회의 선교 헌금에 의존하는 방식을 띠며, 교회는 이러한 선교 활동을 위하여 헌금을 걷어들인다. 그 결과 2007년 아프간 피랍 사태 이후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보도한 대로, 이러한 선교 행위가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에 있어서 전 교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 일부를 제공하는 가벼운 선교에 머문다는 것이다. 즉 선교의 실질 주체로서 평신도들의 직접, 간접적 참가가 배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인식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²⁸⁾ 세 번째로, 이주 노동자 선교의 주체를 소수의 몇 사람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니 아직도 많은 경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선교는 경제력과 인력 등에서의 제반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닌 취약성, 즉 전반적인 인권, 복지, 노동, 사회 의식 등에 있어서 총체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주 노동자 문제는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들에 대한 선교는 한국 사회의 삶의 질, 특히 비-정규 및 일용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들의 삶의 향상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27) 임 희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선교신학적 접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외국인 근로자 선교 위원회(역음),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 출판사, 2000), 212쪽.

28) 임 희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선교신학적 접근,” 213쪽.

다. 네 번째로, 한국 교회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선교 방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순한 개종을 위한 관심이 아니라, 타종교간의 이해와 대화, 타문화에 대한 이해, 더불어 사는 지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평신도들의 생활 선교가 강조되어야 하고, 이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에큐메니칼 연대 구조가 필요하다.²⁹⁾ 또한 교회가 이주 노동자를 위하여 한국 문화 및 한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

3.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주 노동자.

1) 외국인과 관련된 용어들과 '이주 노동자'

구약 성서에는 '이주 노동자'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다. 다만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들 가운데서 오늘날의 '이주 노동자'와 적합한 용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을 지칭하는 첫 번째 용어는 '노크리'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의 어원은 '인식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나카르'에서 왔다. 아카드어의 '누크루'(nukru)는 '다른 나라에서 온 이상한 무엇'을 가리킨다.³⁰⁾ 신명기와 사사기 등에서 매우 빈번히 나타나는 '노크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체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말로 '외국인'으로 번역할 수 있다 (신 14: 21; 15: 3; 17: 15; 23: 21; 29: 21; 사 19: 12; 삼하 15: 19 등).

두 번째 용어는 '자르'로 원래 '이상한, 다른, 불법의'라는 의미를 가진다.³¹⁾ '노크리'와 유사하지만, '노크리'보다 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주로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지칭하며, 외국에서 온 종교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노크리'와 '자르'는 평행 대구로 나타나기도 한다(신 14: 21). 따라서 '노크리'와 '자르'는 유사한 의미로 이스라엘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없었으며(출 12: 43-44), 왕도 될 수 없었고(신 17: 15), 제사장도 될 수 없었다(겔 44: 7, 9).

세 번째 용어는 '게르'로, 전쟁(삼하 4: 3; 사 16: 4), 기근(룻 1: 1),

29) 임 희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선교신학적 접근," 212-215쪽.

30) HALOT, 699-700쪽.

31) HALOT, 279쪽.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 삶의 터를 잡고 살지만, 재산이나, 결혼, 사법권, 제의, 전쟁에서의 권리가 축소된 채 살아가는 사람이다.³²⁾ 켈러만(Kellermann)은 '게르'를 태생인(에즈라흐)과 외국인(노크리) 사이의 중간으로 보며, 이들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친족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살며, 혈연 관계나 태어난 곳에서 나오는 보호나 특권을 상실한 자이다."³³⁾ 그러므로 '게르'는 매우 가난하며(레 25: 47),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자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70인역은 이 단어를 '개종자'(proselyte)로 번역했다.³⁴⁾ 우리말로는 "나그네", "객", "우거하는 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네 번째 용어는 '게르'와 유사하지만 사회적으로 착취당한 상태의 사람을 일컫는 말로, '토사브'라 불리는 사람이다. 이는 '거류민'으로 번역되며,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 혹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³⁵⁾

위에서 제시한대로 외국인을 지칭하는 말은 네 가지가 있지만, '노크리'와 '자르'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외국의 종교적 관습이나 제의를 의미하며, '토사브'는 가나안 원주민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게르'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와서 땅의 소유나 기타의 권리를 제한 당한 채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게르'를 반드시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인종이나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이 태어난 지역을 떠나 그것들이 지닌 보호나 권리를 포기한 채 노동력을 팔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사회 계층적 그룹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약 성서에 말하는 '게르'의 개념을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서에서 그것은 국적의 한계를 넘어서, 법적인 보호나 사회적 보호의 틀을 벗어나 존재하는 신용 불량자, 노숙자, 일용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게르'

32) HALOT, 201쪽.

33) D. Kellermann, "גֵּר," TDOT Vol II (1978), 443쪽.

34) 크리스티아나 반 하우튼,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이 영미 옮김),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223-228쪽.. 70인역은 '게르'를 대부분 '개종자'로 번역했다. 필로는 '개종자'를 "자기 민족이나 고장이나 집이나 친척을 떠나서 유대 공동체의 질서 속에 들어와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왕 대일, "나그네 (게르)-구약신학적 이해," 102-103쪽.

35) HALOT, 1712-1713쪽.

는 오늘날의 이주 노동자의 개념에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즉 구약 성서의 '게르'의 어의에서 비추어, '이주 노동자'를 태생적으로 가지게 된 보호와 특권을 포기한 채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는 국내외의 비-정규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는 확대된 용어로 해석할 수 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야훼 신앙에 근거한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기며, 이방 국가들 혹은 이방인들과는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구약 성서는 '게르'라고 불리는 이 그룹의 사람들을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출 34장 12절과 신 7장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원주민과 계약도 체결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 이후까지 가나안 원주민 혹은 외국인과 접촉해 왔다. 외국인은 다윗의 군사와 관리들, 선원과 상인들 가운데 있었다(삼하 8: 15-18; 11: 1-27; 왕상 9: 26; 10: 11; 20: 34). 가나안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상인들이었다(호 12: 8; 습 1: 11; 잠 31: 24). 외국인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과의 관계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었다. 모세가 미디안 여인과 결혼한 것도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출 2: 15-22). 사사 삼손은 팔레스타인 여인에게 구애했으며(삿 13: 14),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예리코의 창녀 집에 들어갔다(수 2장).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과 같이 너무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어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에 빠뜨리며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행위로 이해했다. 점차적으로 왕정 시대 후기에 나타난 신명기 운동은 외국인과의 혼합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 그 결과 솔로몬 왕의 결혼을 정치적인 목적의 정략 결혼으로 이해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보았으며,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왕상 11: 1-3). 이런 부정적인 경험에서 왕정 시대의 후반부인 신명기 법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인을 진멸하라고 말한다(신 7: 2; 20: 16-18).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었다. 신명기 법에서 가나안 인을 분리시킨 것은 인종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적, 신앙적 이유였다. 이 같은 이유로, 훨씬 후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시 혼합 결혼을 반대하고, 강제로 이혼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포로 및 포로 후기에 이런 국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이스라엘을 통한 야훼의 구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종류의 책은 요나서와 룻기이다. 요나서에 의하면 요나의 회개 요청에 수많은 앗시리아 사람들이 회개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국수주의자였던 요나를 부끄럽게 한다. 또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그녀의 남편과 남편의 집안을 위하여 기꺼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사회의 일원이 되고 다윗의 외할머니가 되었다(룻 4: 13-17). 또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신탁도 볼 수 있다. 사 2장 2-5절에 의하면, 시온에 순례의 행진을 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종말론적인 관점의 시 47편에 의하면, 이방 민족의 고관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묘사한다. 따라서 구약 성서는 인종적으로 편향된 외국인 혐오주의나, 인종 차별주의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구약 성서의 율법은 이주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계약 법전(출 20: 22 - 23: 33)은 '게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이방 나그네(게르)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출 23: 9). 또한 같은 법전에서 더 오래된 형태의 법으로도 나타난다: "너는 이방 나그네(게르)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게르)였음이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출 22: 21-23). 상대적으로 매우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계약 법전에서도 외국인의 압제와 학대를 금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 시대의 '게르'는 이스라엘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다른 부족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다.³⁶⁾ 즉 '게르'의 규정에 있어서 국가적 정체성이 반드시 포함된 것이 아니었다.

왕정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알려진 신명기 법전 또한 이주 노동자인

36) 반 하우트,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80쪽.

‘게르’에 대하여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곡식 낱알, 올리브 나무, 포도원 등은 완전히 다 추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와 사회적으로 약한 자인 고아와 과부가 걷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함이었다(신 24: 19-22). 각 성읍에서, 매 삼 년 끝에 그해 소산물의 십일조는 이주 노동자와 고아와 과부가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해 두라고 명령한다(신 14: 28-29). 또한 이주 노동자는 남녀 종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추수 축제에 참여해야 했었다(신 16: 9-15). 이주 노동자는 안식일에도 쉴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신 5: 12-15). 또한 이주 노동자의 품삯을 당일에도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명령한다(신 24: 14).

그러나 신명기는 이스라엘과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서술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의적으로 불결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반면, 그것을 이스라엘 성에 거하는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노크리)에게 팔 수 있었다. 빌려준 돈에 대하여 외국인에게는 꾸어 준 돈을 독촉할 수 있으며(신 15: 3), 꾸어준 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신 23: 20).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독촉하지도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한다. 외국인 가운데서도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에 대하여 가졌던 적대감 때문이었다. 반면 에돔과 이집트인들은 들어갈 수 있었다(신 23: 3-8).

신명기 법전에서의 ‘게르’, 즉 이주 노동자는 고아, 과부와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법이 그들의 권익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이 법은 약자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영속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내었다. 신명기 법에서의 ‘게르’, 즉 이주 노동자는 궁핍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³⁷⁾ 즉 신명기 법이 제정될 시기의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보호 하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포로 이후의 제사장 문서로 알려진 성결 법전에 의하면 추수 때에 곡식이나 포도를 거둘 때, 일정한 부분을 남겨두어, 가난한 사람과 이주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레 19: 9-10). 또한 더 나아가, 이주 노동자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가족같이 여기며 자기 자신처럼

37) 반 하우트,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132쪽.

사랑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상의 절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출 12: 48). 또한 이 법은 이주 노동자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르친다(출 12: 49; 민 15: 14-16). 더 나아가, 레 25장 23절은 온 이스라엘을 ‘게르’라고 말한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반 하우턴은 제사 법전 가운데 포로 시대 이전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일차 편집 층은 전통으로 확립된 방식에 따라 이삭줍기와 관련된 법을 다루고 있으며, 이방인의 지위가 크게 변화를 보인 것은 포로 시대에 개정된 제 2 편집 층에 서라고 본다. 즉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았다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법(출 12: 48, 49)은 포로 시대 이후에 나왔다는 것이다.³⁸⁾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외국인도 야훼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한다(사 56: 3, 6-7). 에스겔 또한 종말론적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에게도 땅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한다(겔 47: 22). 그 출신 지역과 인종이 다를 지라도, 하나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선포한다. 이 같은 사상의 흐름은 역대기 기자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게르’로 부르는 대상 29장 15절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소망이 없나이다.” 즉 이 시대의 ‘게르’라고 불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주 노동자에게는 거주권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 왕 대일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역대기 기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는 삶을 사는 유대인 모두를 야훼 신앙의 백성으로 격려하고자 한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정치적 자주권이 없었다.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내세울 만한 국토도 소유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로지 페르시아 정부의 비호 아래 숨을 쉬는 종교적 공동체로만 연명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역대기 기자는 야훼 신앙 공동체 울타리 안에 거

38) 반 하우턴,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202-203쪽.

주하던 외국인을 지칭하던 말인 게르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공동체를 이해하는 상징적 개념으로 사용하게 시작하였다. 비-이스라엘인을 부를 때 사용되던 명칭인 게르가 이제는 이스라엘 스스로 일컫는 명칭으로 내면화된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곧 “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³⁹⁾

3)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구약 성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압제 금지 및 보호에 수반되는 경제적 서비스의 제공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 경제적 서비스의 제공은 신명기 법전과 성결 법전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추수 후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남기도록 하고, 포도나 올리브 열매를 남겨서 가난한 ‘게르’로 하여금 취하여 먹도록 했다(레 19: 9-10; 23: 22; 신 24: 19-22). 아울러 밭의 안식년에 저절로 난 곡식이나 포도 열매 등을 종들과 품꾼과 함께 ‘게르’에게 주었다(레 25: 5-6).⁴⁰⁾ 이것은 가난한 ‘게르’를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도 노동의 대가를 통한 먹거리의 획득이라는 인권적 차원에서의 배려로 볼 수 있다. 둘째, 삼 년마다 소산의 십분의 일을 모아 분깃이 없는 레위인, 과부, 고아, ‘게르’에게 나누어주었다(신 14: 28-29; 26: 12).⁴¹⁾

4)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의 동기

위에서 인용한 몇몇 구절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명령의 근거는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이주 노동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출 22: 21). 즉 자신들의 구속사적인 경험이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의 근본적 동기임을 말해준다. 이 동기는 이후의 신명기 사가의 관점과 같다. 안식일에 대한 쉼의 동기에 대한 설명이 가장 유명하다. 십계명 가운데 한 구절인 출 20장 10-11절에 의하면, 안식일의 동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옛세 동안에 이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 5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

39) 왕 대일, “나그네-구약신학적 이해,” 117쪽.

40) 이 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81쪽.

41) 이 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81쪽.

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주 노동자 보호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레 19장 34절도 애굽에서 겪었던 이스라엘의 이주 노동자 경험을 이주 노동자 사랑의 동기로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이주 노동자 경험은 애굽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창세기의 족장들도 외국인으로 약속의 땅에 살았었다.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와 이방인으로 살았다. 그는 헤브론 근처의 막벨라 동굴을 무덤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가나안 지역 원주민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했었다. 약속의 땅에서도 족장들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고, 집이 아니라 천막 속에 살아야 했었다(창 17: 8).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산 경험이 있다. 자기가 태어나고 살던 고향 땅을 떠나 타지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노출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 26장 5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주 노동자 경험을 진솔하게 고백한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본문에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야곱이다. 그는 말년에 기근이 들어 온 가족이 함께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아람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후에 거기서 이주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여호와의 도움으로 모세의 인도 하에 그 지역을 집단으로 탈출하게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땅을 소유한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구약 성서의 율법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 혹은 외국인의 운명을 잘 알고 보호하라고 가르친다. 성서는 그들을 손님으로 알고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라고 가르친다. 손님에 대한 접대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대규모의 살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창 19: 4-8; 사 19: 22-26). 그러므로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이었던 손님 접대 사상과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으로서의 경험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다.

5) 요약

요약하면, 구약 성서는 외국인을 가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을 돕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호 하에 놓인 사람을 '게르'라고 부른다. 또한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지만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을 '토사브'로 부른다. 이스라엘은 '게르'와 '토사브'를 보호해야 하며 가족처럼 다루어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종교적인 영역이다. 외국인은 유월절 축제에도 참여하여 이스라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도 야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를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임금을 매일매일 밀리지 말고 지불해야 하며, 추수 때의 완전한 추수를 금하거나 세금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존 해주었다.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하며, 그들을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법이 시행된 법의 동기는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손님 접대에 대한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습 때문이다.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에도 베풀어 주는 사회에서 여전히 볼 수 있다. 둘째, 이스라엘 자신의 구속사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전에 '이주 노동자'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조상은 가나안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이주 노동자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해방시킨 분은 바로 야훼였다. 이스라엘이 야훼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들도 동시대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방 신 숭배와 관련하여 이주 노동자들과도 선을 그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혹될 수 있었고, 그것은 그들을 해방시키신 야훼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은 수많은 외국인과 이주 노동자들이 혼합하여 이웃해 살면서 결혼까지 이루어졌던 페르시아 통치하의 상황에서 극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결혼 금지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렸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인종적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후기 시대의 문서인 제사 법전과 예언서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 확고하게 공동체 안으로 흡

수되었으며, 배려의 정신은 더욱 더 고양되었다. 그 이유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야훼 신앙을 고백하는 범-인종적, 범-국가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4. 이주 노동자 사회복지에 대한 교회의 바람직한 개입 방안

경제적 위기가 심해질수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줄어든다. 그러나 성서는 시대가 어려워도 그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포용했다. 따라서 현재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개입은 더욱 더 절실하며, 보다 확대되고 전문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더 확고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임과 동시에, 한국 교회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건설할 기회이기도 하다.

1) 이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가치 제공자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이주 노동자 사회복지의 의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인간에 대한 차별 극복은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며, 그 출발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므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권의 보편성은 인종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한다.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도 이주 노동자였으므로,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온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주 노동자에 대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교회는 이주 노동자들을 전도나 개종의 대상으로만 국한시키려는 좁은 견해를 탈피하고, 사랑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가족이라는 성서적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주 노동자 문제에 수반되는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서에 관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나 전반적인 사회에 관심을 촉구하면서 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문제로까지 확대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2)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 형성 과정 개입자

자신들이 애굽에서 이주 노동자(게르)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게르'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게르'를 대하라는 구약 성서의 흐름은 가장 오래된 법전에 속하는 계약 법전, 왕정 시대의 신명기 법전, 포로 후의 성결 법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게르'의 지위가 가장 큰 향상을 이룬 시점이 포로 후기였다는 것이다. 이때 '게르'는 할례를 받은 후 유월절 행사에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포로 후 이스라엘 사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상태였다. 경제적으로는 가뭄과 빈곤으로 인하여 세금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회적으로는 바벨론 귀환 파와 가나안 잔류 파 사이의 갈등이 있었고, 에스라 및 느헤미야 시대의 종교 개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과의 갈등도 존재했던 불안한 시대였다. 그러나 성서는 이러한 시기에도 '게르'에 대한 지위를 축소하거나 이들을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포용하고, 그들을 포함한 사회 통합의 이상을 꿈꾸고 가르친다. 출신 지역과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는 거대한 비전 가운데서 통합의 이상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한 자를 내몰고, 차별하는 고통을 가한다면, 기득권 층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의 비전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비-정규 근로자, 일용 노동자, 이주 노동자, 실업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법적 지위의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고용 허가제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고용 허가제에 의하면,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에 따른 모든 권리는 합법적 체제라는 명분 속에 사업주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없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으며,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고용이라는 법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즉 이주 노동자들에게 영주권 제도를 도입할 본격적인 논의를 펼칠 때라고 볼 수 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이것은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다. 이 역할은 교회가 이주 노동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1) 경제적 서비스의 제공

이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제공에는 막대한 자원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 년의 십일조나 이삭줍기와 같은 구약 성서 시대의 정신에 따라, 가족과 같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재력을 제공해야 한다. 즉 자원 조달자로서의 기능이다. 이 수집된 자원을 가지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사회적 문제 해결

또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상담소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산업 재해, 사업주와의 불화, 의사소통의 문제, 성희롱, 신분 및 법적 지위에서의 문제 등에 관한 전문적인 노동 상담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역할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필요한 욕구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이주 노동자들과 연결시키고, 적시에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관리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즉 인적, 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독교계, 정부, 지역 사회 등을 찾아내고 연계시켜, 양자간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사례 관리자의 역할도 교회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⁴²⁾ 특히 폭행이나 비인격적인 폭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교회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삶의 질에 대한 문제 해결

이주 노동자들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건강보험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의료 선교단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을 치료

42) 김 기원, “이주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70쪽.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 교회 차원에서 힘들면, 교파 연합 혹은 지역 연합을 통하여 의료 선교단을 구성하여,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사각 지역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 재해, 질병, 실직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이들이 취업하여 일상적인 노동에 종사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센터를 운영하는 일도 할 수 있다. 구약 성서의 도피성처림, 불법 체류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느낄 경우에도, 교회는 이들을 위한 도피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의 생활 가운데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 문제이다. 언어 문제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사업주와의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일터라는 공간을 벗어나 우리 삶의 공간으로 나왔을 때,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살던 삶의 공간을 떠나 이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힘든 부분은 노동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 및 문화적 차이에서도 발생한다. 음식과 문화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에게 맞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이 가진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5. 나가는 말

구약 성서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전체가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는 경제적, 사회적, 시대적 공간을 뛰어넘는 성서 내의 보편적 진리이다.

이스라엘이 한때 '게르'였던 것처럼, 수많은 우리 민족도 세계 방방곳곳

에서 '게르'로 살아왔고, 여전히 '게르'로 살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같은 민족이듯이, 우리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 역시 우리에게 는 가족과 같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 역할은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교회의 사정에 따라 사회복지 역할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은 성서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구약 성서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 에 해당하는 요소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것은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수정 불가능한 원칙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교회의 사회복지 개입은 구령 사업을 위한 이차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6. 참고문헌

- 김 기원, "이주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통합연구」 41집(2004), 45-89 쪽.
- 나 동광, "나그네 신학의 기초," 「신학논총」 29집(2001), 187-209쪽.
- 박 경태, "이주 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 노동자 운동의 성격," 「경제와 사회」 67집 (2005), 88-112쪽.
- 박 찬식, "21C 선교 환경 변화와 이주자 선교의 관점과 전략," 「21C 신 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박 찬식/정 노화 편집),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 박 천웅, 「이주민 신학과 국경없는 마을 실천」 (서울: 국경없는 마을, 2006).
- 반 하우튼, 크리스티아나, 「너희도 이방인였으니」 (이 영미 옮기),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 설 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왕 대일, "나그네(나그네) -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집(2001), 101-121쪽.
- 이 만식,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복음과 실천」 26집(2000), 389-438쪽.
- 이 종록, "너희도 전에는 게르였다-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위한 구약성서적 이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외국인 근로자 선교 위원회(역음),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 출판사, 2000), 124-150쪽.
- 이 태훈, "구약의 외국인 복지," 「구약논단」 제27집(2008), 70-88쪽.
- 임 희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선교신학적 접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외국인 근로자 선교 위원회(역음),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 출판사, 2000), 199-216쪽.
- 정 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논총」 23집(2004), 511-525쪽.
- 하벨, 노만 C., "평화의 백성: 아브라함 설화에 나타난 이주 이념," 「신학사상」 113집 (2001), 147-171쪽.

- 한 동구, “나그네 살이 인생과 자손의 약속(창 16장),” 「구약논단」 제13집 1호(2007), 149-171쪽.
- 한 동구,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창세기 해석」 (서울: 이마고데이, 2003), 214-235쪽.
- 홍 성현, “외국인 노동자들과 난민에 대한 봉사목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외국인 근로자 선교 위원회 (취임),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신학」 (서울: 한들 출판사, 2000), 249-264쪽.

검색어

이주 노동자
게르
한국 교회와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와 사회복지

투고일: 2009년 1월 21일
심사일: 2009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2009년 2월 25일

The Directions of Korean Church for Migrant Workers' Social Welfare from the Viewpoint of Old Testament

Yoon-Jong Yoo,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eongtaek University

Malsook Seok, Ph.D.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zarene University

As Thomas Friedman pointed out, we are living in the flat world, so movement of people and materials became easy. Accordingly migrant workers from other countries where labor price is cheaper than that of Korea have come into Korea since 1987. Now more than one million of migrant workers are living in Korea. However, the worldwide economic crisis in 2008 influenced seriously Korean economy too. A lot of non-regular workers, daily workers, and migrant workers are under danger of dismissal. The protection and care for migrant workers as well as nonregular workers and daily workers are necessary. This paper pursues what Korean church should do for migrant workers by what biblical ground (Old Testament) and by what kind of social welfare policy. This paper analyzes and compares present status of migrant workers, biblical status of migrant workers, and then presents what

Korean church should do by the topics of human rights, legal status, economic trouble, social problem, quality of life, and so on.

The human rights of present migrant workers in Korea is not fully protected. Employers regard them not as a human being, but as a working machine. In addition, Korean society sees migrant workers as an object of control, oppression, exclusion. About 21%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re staying illegally. These workers are objects of discrimination, because they are in danger of being banished if their illegal status are revealed. Economically, the most common appeals are overdue wages. A lot of cases of overdue wages are misused by employers for not moving to other companies where higher salary is offered. In addition, about 30% of migrant workers had experienced of violence from employers. Migrant workers also suffer from different language, food, culture, and so on.

In the Old Testament, there are four terms for designating foreigners. Among them, the most similar terminology for migrant worker is ger. The Old Testament always emphasizes protection and care for ger. In the Covenant law which is considered as old as tribal period, the protection and care for ger is crucial. Ger in the Covenant law refers to not only foreign workers, but also even Israelites who left their tribes and under protection of other tribes. In Deuteronomic law which was enacted during the monarchic period, the protection and care for ger is more emphasized than in the Covenant law. The law presents a lot of economic means to help them. Ger in the Deuteromic law is considered not as an Israelite, but as a non-Israelite migrant worker. The Holiness Code enacted during the post-exilic period include ger in Israel community, and if they are circumcised, they can join in the Passover meal. The legal status for ger is fully guaranteed during the post-exilic period. The legal and social status of ger during the post-exilic period was no difference at all with Israelites if ger accepts Yahweh. The irony is that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 was most troubled. The Old Testament suggests that the protection and care for ger is beyond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 It is a timeless truth

that people of God should keep. The Old Testament provides a lot of means to help ger economically. First it is recommended that people should leave some ears of grains, grape and olives during harvest for ger and other poor people. Second, a tithe of three years is collected for ger and other poor people.

As economy decreases, the role of Korean church increases. It would be a good chance for Korean church to recover negative images imprinted in Korean society.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of Korean church to migrant workers as well as other socially weak people becomes more urgent. First, Korean church should provide the value for migrant workers' human righ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 goes regardless of race, social position, and riches. The Bible teaches us to take care of migrant workers like a family member. Thus Korean church should raise the issue of migrant workers' human right. Second, Korean church should support for movement of increasing legal status of migrant workers. It is time for migrant workers to get a permanent residency in Korea. Third, Korean church should provide specific project for helping migrant workers such as economic benefits, professional counseling, giving shelters, teaching Korean, and so on.

The protection and care for migrant workers is not a secondary role of Korean church after saving souls. The Bible teaches us that it is the primary role as important as saving souls. In conclusion, It is noted that it is a kairotic time for Korean church to intervene urgently to migrant workers' social welfare in Korea.

Keywords

migrant workers
ger
Korean church and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s and social welfare

